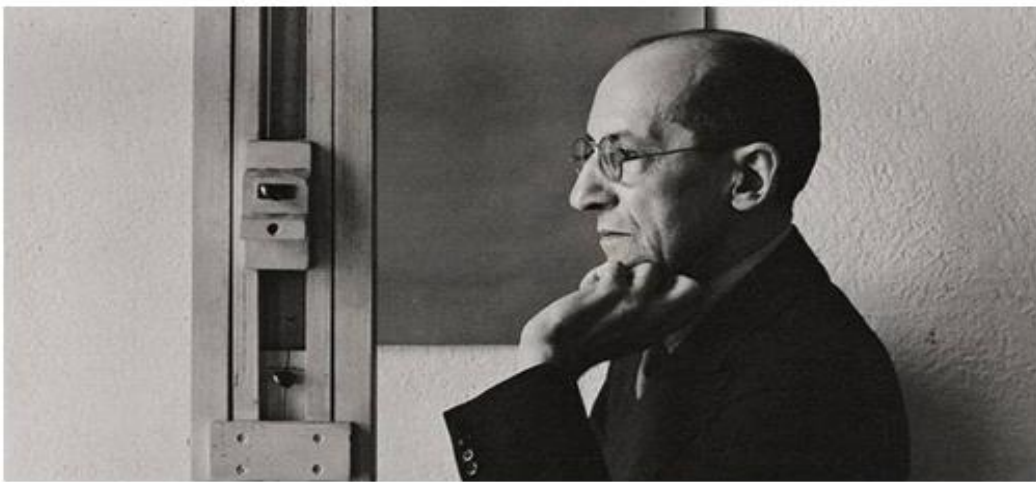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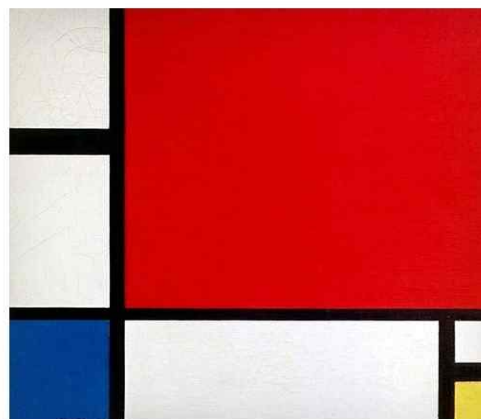


20세기 최고의 추상화가 몬드리안의 작품은 1999년 창업초기 당시 디자인의 모티브가 된 한국의 조각보 패턴을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흔히 동양의 몬드리안이라 칭하는 조각보는 단순히 물건을 싸거나 이동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한국공예의 한 부분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본 연구는 한국적 문화상품 주얼리와 필기구 전문업체인 수디자인 (1999년 설립, 대표 정을화)의 조각보문양을 응용한 장신구와 데스크용품을 통하여 몬드리안 작품과 익명의 한국여성들이 자투리 천으로 만든 조각보의 조형성을 간략히 비교 연구하여 이들의 작품으로 한 장신구와 필기구 문화상품 개발에 연속성과 조형성을 올바르게 표현하는데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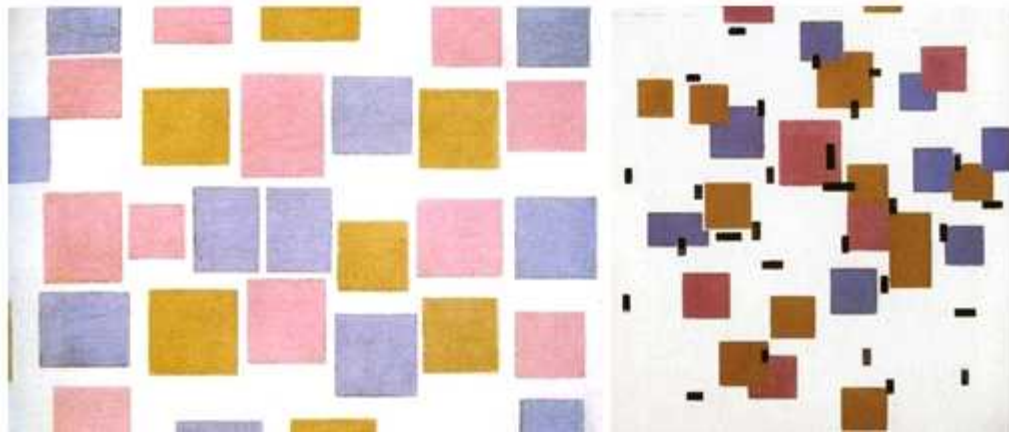
몬드리안



피트 몬드리안(Piet Mondrain)은 1872년 3월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이며 칸디스키와 더불어 추상회화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데 스테일" 운동을 이끌었으며, 신조형주의(Neo-Plasticism)라는 양식을 통해 자연의 재현적 요소를 제거하고 보편적 리얼리티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기하학적인 추상은 20세기 미술과 건축, 패션 등 예술계 전반에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피트 몬드리안
빨강, 파랑,노랑의 구성 - 1921년



몬드리안 회화는 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는 직각으로 교차되는 선과 흰색, 검정색, 회색의 무채색에 대립되는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을 농도와 명도가 일정하도록 채색함으로 이를 가시화 했으며 빨강과 파랑의 색면이 전해주는 힘과 색채의 상승 확장하는 움직임이 삶의 에너지를 느끼게 합니다.

조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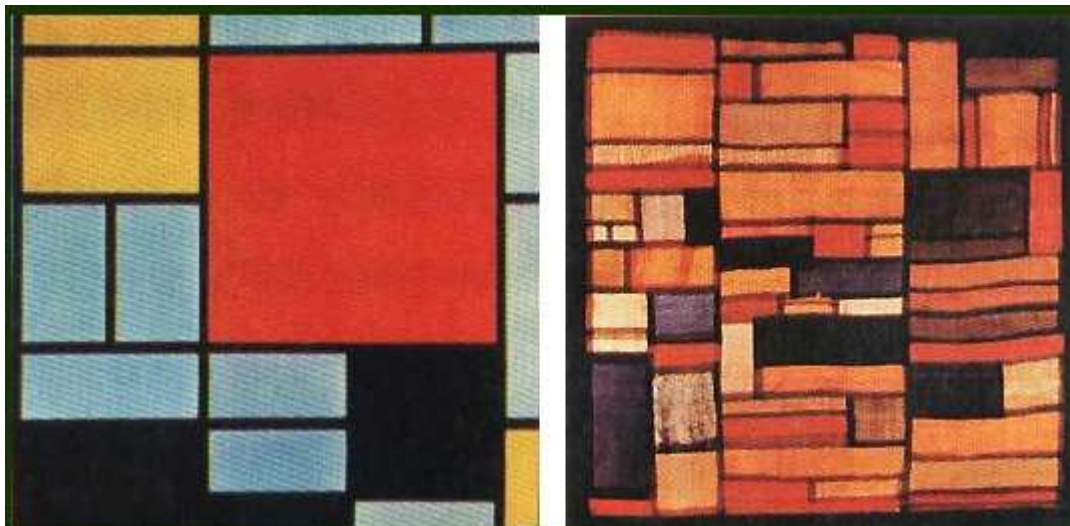
조선시대 익명의 여인들의 대표적 산물 중 하나인 조각보는 자투리 천이라는 실용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조각보는 그 시대 여성들의 자유로운 내적 표현이며, 실용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우리민족 고유의 뛰어난 미감과 조형에 나타난 색채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각보에 나타난 다양한 면의 색상들의 표현은 복을 비는 염원이 담긴 음양오행사상과 자연주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형성하고 있으며 자연미감이 잘 나타나 있는 다양한 색상들은 오방색을 토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몬드리안과 조각보 특성비교

조선시대 조각보는 그 색채와 면구성의 독특한 기법과 아름다움으로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 되었고 그 특별한 구성미와 조형성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 네덜란드 추상화가인 몬드리안 추상회화와 비교되게 되었습니다.



몬드리안

조각보

몬드리안과 조각보 특성비교를 보면 조형적 특성에서 몬드리안은 형상의 중심을 기본틀을 간소화 하고 선과 색의 완벽한 단순화를 추구합니다. 조각보는 면 구성에 삼각형, 사각형, 방사형, 여의주문형, 자유형으로 반복적인 구성으로 표현 되었습니다.

색상배합에서 몬드리안은 적색, 청색, 황색등 순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했으며 조각보는 오방색중 청색과 적색계열을 사용 강한 대비를 표현하면서 차분한 백색을 사용 다양한 색채를 활용 하였습니다.

몬드리안과 조각보의 일치성은 조각이 연결되는 선을 테두리로 마무리하여 색면 분할을 선명하게 하고 있는 점과 오방색인 청색, 적색, 백색과 흑색을 면에 사용한 점이 일치하며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대상물을 기하적으로 질서 있게 분할되고 화면은 평면적으로 된 점이 일치하며 수직선, 수평선, 직각 그리고 사각형은 공간이 형태가 되고, 형태가 공간이 될 수 있는, 즉 공간과 형태가 같은 가치를 구성미도 일치합니다.

조각보는 동양의 종교철학의 관념, 즉 음양의 이원론적 사유와 오행사상이 상징으로 나타난 평면적 구성이 되는 것이며 몬드리안의 수직선, 수평선의 평면구성도 신지학의 이원론적 사상이 평면구성으로 표현됨이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몬드리안 작품과 조각보의 동일성을 엿볼 수 있는 "화면의 평면성"은 몬드리안에 의해 결정적인 조형적 형태언어가 되었으며, 그 평면성은 조선시대의 "조각보"와 일치성을 볼 수 있습니다.

몬드리안 작품과 조각보패턴이 응용된 "수디자인'의 문화상품 사례



조각보 사무용세트 2000/ 흑단, 정은, 향나무 / W300 D150 H120 /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0 우수공예문화상품 100선 당선작



조각보 브로치 2000 / 흑단, 향나무, 정은 / W50 D12 H50



조각보 헤어핀 2011 / 흑단, 금박, 옷칠 / W95 D18 H40

몬드리안작품과 조각보의 연관성 미래의 가치

이번 소 연구를 통해 “수디자인”사의 문화상품에 즐겨 사용하고 있는 대표이미지인 조각보를 몬드리안 작품과의 연계성을 비교하고 동일점을 찾아보는데 주안점을 두어 개발상품들의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몬드리안의 면 분할방식과 색채 및 근원적 사상에 이르기까지 기하추상은 조각보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각보의 현대적 결합의미와 영속성은 “보편미학”을 추구했던 몬드리안 작품과 연계되어 한국적 문화상품 현대화의 조형성에 중요한 요소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나아 갈 것임을 확신합니다.